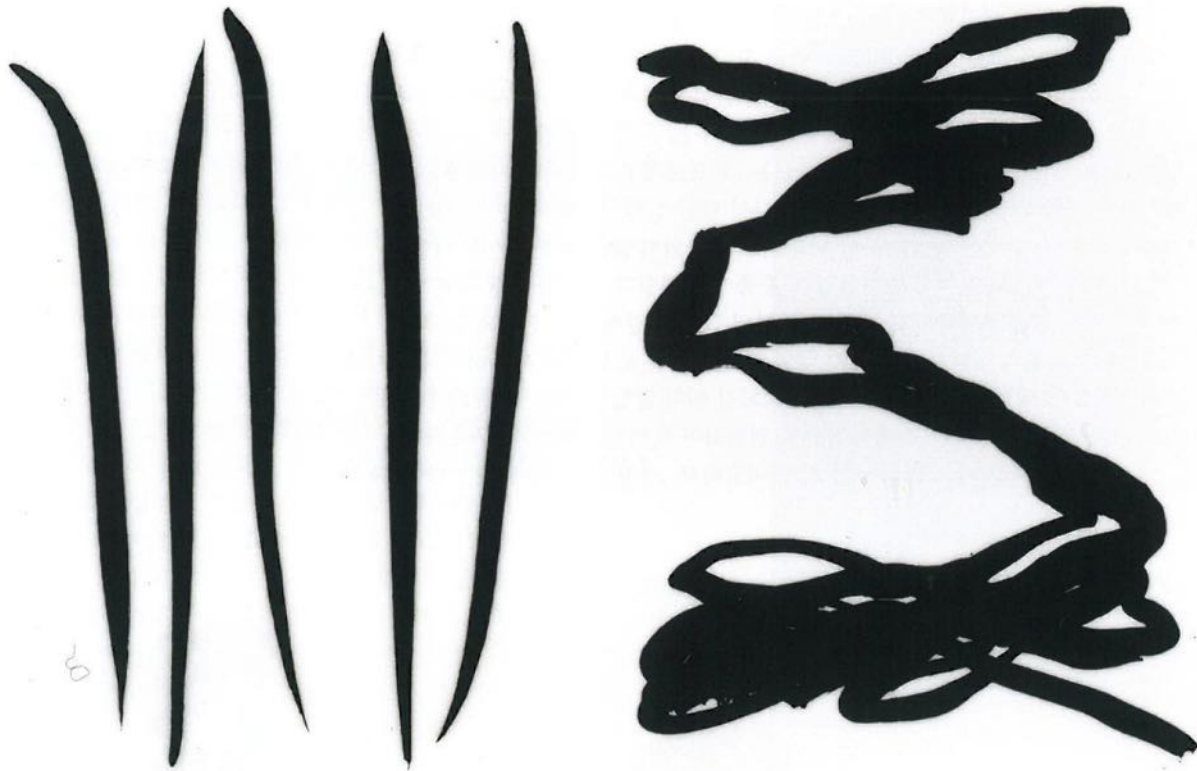


이 배

Lee Bae / b. 1956

홍익대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Solo Exhibitions** 우손갤러리(2016), 프랑스 사뮈트공전(2016), 프랑스 도멘드케르게넥(2016), 파리 기메국립동양미술관 (2015), 갤러리현대(2014), 대구미술관(2014), 생루이 페르네브랑카 파운데이션(2014) 등 **Group Exhibitions** <Korea Tomorrow>(성곡미술관 2015), <Overcoming the Modern, Dansaekhwa: The Korean Monochrome Movement>(뉴욕 알렉산더그레이갤러리 2014),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2014) 등 **Awards** 한국미술비평가협회 작가상(2013), 파리 주프랑스한국문화원 작가상(2009),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2000) **Address** www.leebae.net



왼쪽 · <Acrylic Medium>
캔버스에 목탄 92×73cm
2015
오른쪽 · <Acrylic
Medium> 캔버스에 목탄
162×130cm 2016

흑과 백의 순환, 개념과 형식 사이 납화 같은 캔버스의 광채 표면에서 형태는 좀처럼 그것을 그려낸 점정에 매이지 않고 가볍게 부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 심층의 색상과 그 위의 반투명 왁스 표면이 이중 피부를 이룬다. 우리는 야수적이지만 영묘한 조각적 개입의 현전에 사로잡힌다. 우리는 즉시 그 정직함에 대면하게 되며, 태연하게 그 성질이 공표됨으로써 역설적으로 매체보다 예술작품으로서의 현전에 더 사로잡히게 된다. (...) 이배는 무엇보다도 우선 연금술사다. 그는 매체에 변화무쌍한 성질을 불어넣는 능력을 그다지 힘을 들이지 않고 가볍게 터득했다. 매체의 물질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그것의 표현성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 말이다. 그에게서 우리는 보들레르의 산책자처럼 유유자적하며 지리적 문화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거주하는 사람, 그러나 계속 그의 전통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본다. 이는 그가 숯을 사용하는 데서 알 수 있다. 숯은 그의 모국에서 일상생활이나 민간 의례에서 전통적으로 두루 사용되어 온 요소다. 그러나 그의 일과 작품과 삶을 사로잡은 것은 선(禪)과 같은 우주가 발산하는 내적 균형 감각과 에너지에서 나온다. (...) 이배의 작업과 조우하면서, 형태와 개념이 자연스럽게 뒤엎히는 그의 세계의 유희적이고 무한한 현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 샘 바르필 & 팀 펠라스(아트 리오리엔티드 디렉터)